자연치유도시 제천
HEALING CITY JECHEON

2020.5.22.(금) 10:00
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

시 정 질 문 답 변 서



제 천 시

시정질문 및 답변순서

【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】

답변일	의원명	질 문 내 용	답변자	비고
2020.5.22.(금) 10:00 (2차 본회의)	이정임 의 원	명품관광 비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	제천시장	
		제천시 생활쓰레기 및 불법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하여		

답 변 서

질문의원	이 정 임 의원 (산업건설위원회)
답 변 자	제천시장 이상천
제 목	1. 명품관광 비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2. 제천시 생활쓰레기 및 불법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하여

질문요지

1. 관광미식과

○ 먹거리 연계 등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전략

○ 지역 경제 활성화 콘텐츠 현황

○ 제천시 체류형 관광 추진 현황

2. 자원순환과

○ 시민만족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 현황

○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도로변 불법쓰레기 처리 현황

○ 제천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

답변내용

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,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관광미식과의 『명품관광 비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』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1 먼저, 먹거리 연계 등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, 최근 여행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지역 음식이 1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따라 우리시도 2019년 미식마케팅팀을 신설하였고, 미식을 관광에 접목하여 제천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미식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약채락 브랜드 강화, 특화음식거리 조성, 미식 관광상품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 주요 역점사업을 말씀드리면,

① 첫 번째로 약채락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.

- 약채락 브랜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약채락 R&D상품으로 황기 막간장을 개발하여 특허등록 하였으며, 약고추장, 약초 페스토, 뽕잎소금 등 약채락 3종 약념도 추가로 개발하여 황기막간장과 함께 4대 약념(藥念)으로 세트 상품화할 계획입니다.

- 또한 4대 약념(藥念)을 기본으로 약채락 건강도시락을 개발하여 지난해 10월 한방바이오박람회에서 첫 런칭 후 시범 운영한 결과 2,400여개의 도시락이 판매되는 등 관광상품화 성공

가능성을 엿봤으며, 현재 약채락 2개 업소에서 약채락 건강도시락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,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

- 코로나19로 인해 집밥과 배달음식이 주목받는 상황에 맞춰, 약채락 건강도시락도 가격을 낮추고 메뉴를 추가하는 등 품질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② 두 번째로 제천 맛집 35개소 선정입니다.

- 우리시는 지난해 지역 외식산업 발전 및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고미(高味), 육미(肉味), 풍미(風味), 별미(別味)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35개소의 식당을 제천 맛집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.

- 금년에는 제천 맛집 35개소에 대하여 홍보물 및 영상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및 한국관광공사, 여행사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, 아울러 주요 관광지 전광판 등을 이용 다양한 홍보를 통해 청정지역인 우리시 음식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, 제천 맛집 35개소 이외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식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대일 외식업 닥터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식문화 컨설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③ 세 번째로 명동갈비골목 특화 및 가스트로 투어 상품화입니다.

- 새로운 미식 콘텐츠 개발 및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기존의 약선음식거리를 재 정비하여 명동갈비골목과 가스트로 투어 특화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.

- 제천의 명동은 서울의 명동이라 불릴 정도로 과거에는 제천의 식도락 거리였습니다. 이에 과거의 명성을 되살리고자 명동갈비골목으로 지정, 음식특화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- 지난해 12월 명동갈비골목 활성화 차원에서 제1회 hot & spicy 푸드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국 유일의 '매운 음식 축제'를 선점한 바 있습니다.

- 가스트로 투어는 약 2시간 동안 도심의 약선음식거리와 전통시장을 도보로 이동하며 다양한 음식을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맛보는 도심형 미식여행 상품입니다.

- 지난해 10월 "맛있게 제천의 도심을 걷자"라는 콘셉으로 여행사, 블로그 기자단, 여행작가,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한 결과 관광 상품화 할 경우 인기 상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

- 금년도에는 제천 시티투어와 연계 상품화하여 침체된 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.

④ 마지막으로 ‘2020 미식도시 선포식 개최’ 입니다.

-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금년 9월중 ‘2020 미식도시 제천 선포식’을 개최하여 제천 음식의 맛과 우수성을 전국에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.

- 이를 통해 제천 음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내·외 식도락가들의 제천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제천이 명실상부한 미식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2 다음은 ‘지역경제 활성화 콘텐츠 현황 및 체류형 관광 추진 현황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각종 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○ 관광사업은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. 단순히 보는 관광이 아닌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먹고 즐기는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만 관광객에게 만족감을 주어 재 방문으로 이어져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다시 찾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.

○ 이에 따라 우리시는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들을 제천으로 오게 만들어 체험하고 숙박하고 소비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○ 그 중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는 제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천에서 1주일을 살아보며 제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숙박비(1일 3만원)와 체험비(1일 2만원)를 지원해 주는 “제천에서 1주일 살아보기” 사업을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.

○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여행객 증가, 단체관광객 감소, 개인 및 가족단위 관광객 증가 경향에 대비하여 6시간 5만원(3만원 지원), 10시간 8만5천원(5만5천원 지원)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제천시 구석구석 원하는 곳을 여행할 수 있는 “관광택시” 사업을 지난 5월 1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.

○ 한편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우리시 관광이 지닌 한계이기도 한 체류형 관광, 야간 관광을 위한 인프라 부족을 절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숙박시설 확충 등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한 주요 역점사업을 말씀드리면,

① **첫 번째,** 도심 관광의 휴식처인 **제천형 게스트하우스** 및 원도심 상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**문화의 거리 자연형 수로 조성** 사업입니다.

- 체류형 관광을 위해 꼭 필요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명동의 엽연초생산조합, 교동의 목화장, 영천동 커뮤니티센터, 청전동 등 4개동 총 38실 146명 까지 수용 가능한 제천형 게스트하우스를 도심 곳곳에 조성하고 있습니다.

[게스트하우스 조성 현황]

연번	시설명	객실수	수용인원	비고
계	4개 동	38실	146명	
1	청전동 게스트하우스(신축)	11	52명	기획예산과
2	교동 목화장 여관	13	36명	도시재생과
3	명동 엽연초생산조합 건물	8	26명	〃
4	영천동 커뮤니티센타(신축)	6	32명	〃

- 또한,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자연형 계곡과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도심으로 관광객을 유입하여 쇠퇴한 중심상권 경제 회복의 활로를 찾고자 합니다.

- 6월말까지 주요공정을 마무리하여 국제음악영화제 때 본격 가동하여 도심을 활기차게 하겠습니다.

② 두 번째로 도심권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.

○ 먼저,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.

-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은 문체부 지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계획에 따라 2018부터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포함 총 23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.

- 총 29,721㎡부지에 농경문화체험장, 물놀이장,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후, 금년 8월 공사에 착공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다음 용추폭포 인도교 개선사업입니다.

- 기존 콘크리트 인도교는 1989년 준공 이래 2005년 데크 시설물로 외관을 보완 사용 중이었으나, 정밀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 교량으로 보행자 안전 문제 해소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폭포의 자연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리 전망형 인도교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.

- 본 사업은 2019년 11월 착수하여 금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본격적인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의림지 및 제림과 조화를 이루며 의림지의 보존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용추폭포의 자연미를 감상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다음 의림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.

- 의림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의림지 주변 곳곳에 테마가 있는 조명 및 미디어 파사드 연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이 체류하고 싶은 의림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.

-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지난해 7월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1월 문화재현상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으며, 금년 8월 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의림지를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.

○ 다음 에코브릿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에코브릿지 조성사업은 삼한의 초록길과 북부순환도로 교차지점에 폭 4 ~ 15m, 길이 268m의 전망대형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5억원입니다.

- 현재 교량 공법 및 디자인 결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, 설계 마무리 작업 중으로 6월 중 공사 착공하여, 올해 안에 준공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삼한의 초록길과 더불어 우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

○ 다음은 삼한의 초록길 명소화사업입니다.

- 현재의 초록길 광장은 수목식재 구간과 원형 잔디광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나, 이용실태로 볼 때 새로운 공간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- 따라서, 시에서는 의림지뜰의 농업문화와 연계하여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

- 우리나라 씨름과 더불어 단오절 2대 놀이문화 중 하나인 그네를 특화한 ‘그네마당’과 음력 8월 보름달을 모티브로 한 ‘달빛정원’이며, 사업비는 총 38억입니다.

- 현재 설계 진행중으로 5월말 공사발주를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, 금년 내 ‘그네마당’을 완공하고, 내년 ‘달빛정원’ 조성 추진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.

○ 마지막으로 의림지 삼색 빛 국민정원 조성사업입니다.

- 의림지 삼색 빛 국민정원 조성사업은 2020년 3월 문체부의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.

-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국비100억, 도비 30억원, 시비 70억원 등 총200억원 한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림지 일원을 미디어아트와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야간관광지로 특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.

- 올해는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업무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2021년 실시설계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여, 2022년 공사에 착수, 2024년 말까지 의림지 일원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

③ 마지막으로 청풍권 및 박달권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앞에서 설명드린 도심권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외에도 청풍호반 케이블카 관광자원 활성화사업(구름다리, 경관공원), 옥순봉 출렁다리 조성사업, 청풍호반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등 청풍권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○ 박달재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, 배론 관광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도심권, 청풍권, 박달권 등 주요 권역별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관광사업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우리시는 앞으로도 권역별 인프라 구축사업과 새로운 관광 활성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코로나19사태 안정화 이후 활성화 될 국내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

○ 침체된 도심의 경제 활력을 위한 관광분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맘껏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켜 침체된 지역경제에 반드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.

다음은 『제천시 생활쓰레기 및 불법쓰레기 처리현황』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1 먼저 시민만족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.

○ 시민만족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및 위생적 처리로 환경오염 최소화는 물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시민이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○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과 함께 생활폐기물 일일 수거,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(3개소)의 효율적 관리, 비산먼지 등의 제거를 위한 도로 물청소(년2회 40백만원),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(170동/424백만원),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(28개소), 노면청소차(3대)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○ 특히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지난 4월부터 불법투기단속 전문요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명 고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도심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.

○ 앞으로도 시민과 제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 청소행정력에 집중하겠으며, 폐기물 지도점검 강화와 예방위주의 선제행정으로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2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도로변 불법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.

○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및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세대 및 상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출입구에 안내문 부착 및 방송

홍보문을 배부하여 분리배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아파트관리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쓰레기분리 배출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 원룸, 소규모 다세대 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불법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원칙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.

○ 깨끗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투기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○ 단속 인력으로는 현장단속반(2개반 6명), 청소기동반(1개반 8명) 불법투기 지도단속원(기간제근로자 2명)이며,

○ 단속은 CCTV통합관제센터(2,339대)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과 불법투기 전용 CCTV(42대)를 활용하여 영상단속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.

○ 또한 상습투기지역에 경고판 설치와 함께 환경미화원을 구역별로 나누어 책임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[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] (건수/단위:천원)

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25/3,080	33/4,550	53/6,550	40/4,600
투기22 소각3	투기30 소각3	투기49 소각4	투기38 소각2

○ 금년부터 읍·면·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할지역 내 쓰레기 불법투기는 1차적으로 읍·면·동에서 책임관리하는 체제로 구축하고, 더불어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상습 불법투기지역을 점차 줄여서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3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입니다

○ 쓰레기 종량제 봉투 종류에는 소각용, 매립용, 음식물용 3종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제작 현황으로는, 2017년 5,805천장 316백만원, 2018년 5,488천장 349백만원, 2019년 5,610천장 357백만원입니다.

○ 끝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생활쓰레기 및 불법쓰레기 처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